

원주푸드운동의 경과

조세훈¹⁾

-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(현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)를 비롯한 민간단체에서 2007년 경 지역에서 생산된 농식품이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식량계획이 필요성을 주장함.
 -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는 원주맑음신흥, 원주한살림, 원주생협, 원주의료생협 등 원주 지역의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 15개 회원단체로 구성된 네트워크 조직으로 협동조합간 협동,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 협동조합운동의 대원칙을 기본으로 지역에서 협동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음.
 - 유기농업운동의 상업화, 웰빙에 편승한 생협의 외형적 확장과 지역사회와의 단절 등에 대한 반성에 기초해 지역살림의 구체적인 형태로 로컬푸드운동에 주목하고 ‘생산-가공-소비-유통-순환’의 과정을 지역에서 선순환시키기 위해 로컬푸드운동을 펼치고 있음.
-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내 학교급식위원회를 발전시켜 2008년 2월 노동부 기업연계형 사회적일자리 사업단으로 원주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출범시켜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한 로컬푸드사업단으로 사업을 시작함.
 - 2008년 8월. 학교급식실태조사사업 진행.
 - 2009년 1월. ‘원주 로컬푸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’ 개최
 - 2009년 1월. 원주친환경농업인연합회 발족
- 2009년 8월. ‘원주지역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’ (원주시장 참석). ‘원주푸드인증제 실시’와 함께 ‘원주푸드종합지원센터 건립’이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되고 시책으로 수용됨.

참고자료. 원주지역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²⁾

○ (가칭)원주푸드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

1) 사회적기업 친환경급식 맞두레(주) 대표, 원주시 원주푸드위원회 운영위원

- (인근)지역내에서 생산된 농식품이 지역내에서 우선적으로 소비될 수 있도록 민,관,학(연),농(산)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조직으로 (가칭)원주푸드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이 필요
- 농식품의 지역생산량을 관리하고, 지역내 소비와 연계할 수 있는 지역식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식량자급율을 제고하는 등의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. 각 부서별로 산재해 있는 관련업무를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담당
- (가칭)원주푸드정책협의회의 경우 행정에서는 농업직 관련 공무원(농정과)이 주무(상임)을 맡되, 주민생활지원과, 여성가족과, 보건소, 교육청 등이 참여하여 이른바 로컬푸드와 관련한 통합적인 논의 기구로 구성되어야 함
- 아울러 무엇보다도 민간의 참여와 주도성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함
- 시민고충처리위원회,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등과 유사한 상설(상근)위원회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, 협의회의 권한과 사업내용 등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(가칭)원주푸드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화 필요

* 근거법령 :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

○ 원주푸드종합지원센터 설치,운영 - 학교급식지원센터 기능 통합 운영

- 지역식량계획에 근거한 원주푸드 운동은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부문이 선도해야 하며, 이를 위해서는 하드&소프트웨어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인프라가 필요함
- 지역농업부문에 대한 종합지원과 지역 내,외유통, 전처리, 가공 및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원주푸드종합지원센터를 한강수계기금 청정산업지원비 등을 통해 반드시 구축해야 함
- 아울러 원주푸드종합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상의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, 원주푸드의 전처리와 가공, 유통 등 하드웨어적 기능과 함께 친환경 농업지원 기능, 식생활교육지원 기능 등 소프트웨어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복합적인 센터로 구축
- 원주푸드종합지원센터는 태양광발전, 바이오매스, 친환경적오폐수처리시설 등 친환경시설을 도입하여 건립할 것을 제안하며, 운영 및 실무와 관련해서는 (예비)사회적기업인 친환경급식지원센터로 위탁하는 방안 검토.

* 근거법령 : 학교급식법, 원주시학교급식지원조례, 식생활교육기본법(09/4/29 제정)

○ 원주푸드 인증제도 도입 - 로컬푸드 모범음식점 인증제도 통합 운영

- 국가인증제도인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와는 별도의 지역내 원주푸드 인증제도 필요
- 원주푸드 인증제도는 시민적 합의에 의한 자율적 인증제도 운영
- 생산과정의 인증기준은 저농약 수준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상향 발전
- 인증주체는 원주푸드정책협의회 산하에 인증위원회(또는 인증원)을 설치하여 담당하도록 구성하고, 운영과정에 시민참가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객관성 및 신뢰성 구현
- 인증기준은 신선도, 안전성, 지역성, 환경적 지속가능성 등을 원칙으로 협의를 통하여 마련하고, 원주푸드조례 규칙으로 세부기준 제시
- 안전도시, 건강도시, 에너지자립 등의 컨셉과 원주(로컬)푸드를 접목시키고, 음식점 등으로 확대할 수 있어야 함
- 농산물 등 식재료 뿐만 아니라 음식점 등에도 사용량에 따라 원주푸드 인증 확대. 즉, 1차

농산물의 생산과정과 가공식품의 원재료 기준 등을 통한 인증과 함께 식당 등 원주푸드를 사용하는 장소에 대해서도 인증기준 마련

- 인증마크 선정과 운영 등에 시민 참여 방안 마련 - 별점(★☆☆) 등 다양한 방식의 아이디어 공모
-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온실가스 저감 사업의 일환으로 접근

○ 원주푸드 농민장터 활성화

- 새벽시장을 시간적, 공간적 제약을 보완하여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뛰어난 장소(아파트 단지 등)를 중심으로 원주푸드 농민장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우수한 모델을 개발하여 확대 보급
- 이러한 모델은 원주푸드 상설농민장터로 발전
- 계절별, 권역별 및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이동식 농민장터 운영
- 단순 상거래외에 도농교류가 촉진되리 수있도록 다양한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문화 시장 개념으로 육성
- 농민, 생산자 외에 시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수제품 등 취급가능품목 개발
- 주민자치위원회(또는 아파트 부녀회 등)와 농촌마을간 연계 모델을 발굴하고, 적절한 인센티브 지원
- 농민장터를 통해 원주푸드 전반에 관한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
- 원주생협, 원주한살림생협, 가농우리농 매장(주변), 행복도시락(웨스포센터)를 활용하는 방안은 자체적으로 실시하며, 이를 기반으로 행정 부문의 계획과 연계하여 운영

○ (가칭)원주푸드지원조례제정

- 원주푸드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,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 지원, 농민장터 설치운영 및 지원, 원주푸드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위탁운영, 원주푸드 인증제도, 도시농업 진흥, 도농교류 장려(CSA, 농민장터 등), 식생활교육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(가칭)원주푸드지원조례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함
 - 원주시의 장기적인 도시발전비전과의 연계성을 전문이나 목적조항에 반영하여 지역농업 및 원주푸드 정책과 관련한 포괄적인 기본조례의 성격 확보
 - 예산편성 및 지원 등 자치단체의 역할과 임무를 명시하고, 민간의 참여가 장려되어야 함
- * 근거법령 :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, 학교급식법, 식생활교육지원법 등

○ 원주푸드 담당부서 설치

- 원주푸드 사업의 경우 사업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며, 통합적인 관점에서 관계 기관 및 부서, 단체 등과 포괄적인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므로 별도의 담당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임
- 특히 (가칭)원주푸드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, 원주푸드 인증제도의 도입과 운영, 원주푸드 종합지원센터 건립과 운영 등 사업 비중이 매우 크고, 이는 지역농업 전반과 관련하여 매우 중대한 사업이 될 것이므로 기존의 인력이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
-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원주푸드 담당부서를 설치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충분한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성공적으로 원주푸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 함

○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

- 연차별 지역식량 자급율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생산계획 조정,지원
-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은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
- 직거래 개념의 계획생산이 가능하도록 수매자금 이자지원 등 지원책 개발
- 농촌형 식품가공산업을 지원 및 육성하여 농업의 6차산업화 추진

○ 학교급식지원 중기 로드맵(Road Map) 작성

- 학교급식지원업무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매년 단기적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학교급식의 향상과 원주푸드의 문제의식을 실현할 수 없음.
- 학교급식지원과 관련한 중장기 로드맵 작성 및 실행이 필요. 담당부서의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고, 결식아동지원 등 교육청 소관업무를 종합적으로 검토, 추진해야 함
- 학교급식지원은 무상급식,친환경급식(로컬푸드),교육급식 및 지역농업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함.
-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지원품목을 쌀 단품에서 기타 품목으로 확대하고, 사양을 무농약(친환경)수준으로 상향, 지원대상도 고등학교까지 전체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종합계획 필요.
- 학교급식 등에 직거래 방식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매 지원 방안 필요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계획에 포함하여야 함
- 아울러 직거래 방식을 통해 식재료 가격을 안정시키고, 농민의 계획생산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수매자금 이자대납 또는 기금대출 등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계획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

* 근거법령. 학교급식법, 원주시학교급식지원조례, 식생활교육기본법(09.4.29 제정)

* 학교급식위원회 : 교육감 산하 (학교급식법)

*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: 자치단체장 산하 (학교급식법)

○ 안전한 공공급식 지원

-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기관, 복지관, 병원 등 공공급식과 지역내 민간기업 단체급식이 원주푸드운동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역식량계획과 연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수립에 반영하고, 관련 예산지원 전폭적 확대가 필요함
- 교육청으로 이원화되어있는 학교급식지원업무를 자치단체에서 주도하여 협력적 모델 구축
- 원주푸드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공공급식에 안정적으로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
- 쌀 단품중심의 지원을 제철 원주푸드 식재료를 기본으로 한 전 품목으로 확대

○ 먹거리 복지사업 구축 - 취약계층 및 산모와 영유아

- 결식아동 및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과 산모와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재료(도시락) 지원 프로그램 등 공공부문에서 진행하는 관련 사업등도 원주푸드 관점에서 추진 필요.
- 구체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, 결식아동 반찬서비스사업, 산모영유아보충영양관리사업 등을 보다 확대하여 진행해야 함
- 아울러 보다 전문적인 시스템의 도입을 통하여 안전하고 영양적으로도 우수한 먹거리 복지

- 사업으로의 발전을 위하여 원주푸드와 연계한 다양한 사업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
-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행복도시락센터(웨스포센터) 모델을 활용할 필요성 있음

○ 농촌형 에너지자립마을 구축

- 원주푸드 사업은 온실가스 저감 및 적응 능력 향상 등을 통한 기후변화대응사업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
- 아울러 원주시는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로 정부와 협약이 되어 있으므로 원주시의 특성화된 기후변화대응 전략으로서 로컬푸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해야 할 것임
- 바이오 디젤, 바이오 연료가스, 목재 펄릿 생산, 축산폐기물을 활용한 발전시설, 풍력, 소수력 등의 자원을 활용, 특색있는 전략 마련 필요
- 특히 이러한 사업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어 유기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마을 구축 사업 등을 구체화해야 하며, 푸드마일리지 도입, 유기농업 연계 바이오에너지 개발 등 기후변화대책 사업 등을 다양하게 운영해야 함

○ 부족한 농식품에 대한 원주인근 농촌지역과의 연계와 협력

- 원주푸드 사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원주에서 생산된 농식품 위주로 추진하되,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인접 지자체와 협의하여 수급 대책 마련
- 아울러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도시농업을 지원하고, CSA 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

○ 2009년 12월. 용정순 원주시의원의 대표발의로 로컬푸드관련 조례로는 전국 최초로 ‘원주푸드육성및지원관한조례’(이하 원주푸드조례) 제정.

- 원주푸드조례의 성안과정에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와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등이 참여하여 시의회와 집행부, 민간이 함께 협력하는 거버넌스형 조례로 제정.

○ 2010년 8월. 원주푸드위원회 발족.

- 2010년 8월. ‘원주푸드 활성화 기본계획’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

○ 2010년 11월. ‘2010 로컬푸드 전국대회 in 원주’ 개최.

○ 2011년 1월. 원주시 조직개편, 원주푸드계(농정과) 신설. 학교급식 등 업무 이관.

○ 2012년 4월. 원주시 조직개편, 농업유통과(유통지원계, 원예특작계, 원주푸드계, 친환경농업계) 신설.

○ 2012년 8월. 원주푸드종합센터 착공예정. 2013년 8월 준공목표.